

평화와 번영, 통일의 풍만한 가을을 펼쳐주신 민족의 태양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 삼가 드립니다

지금 남북상선리는 역사적인 제5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사변적인 소식에 접하고 무한한 격정과 환희로 들끓고있으며 전세계의 열망과 감흥은 우주정공에 치달고있습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민족사에 특기할 대서번인 제5차 남북정상회담 상봉과 회담을 대성공으로 이끄시어 온 겨레에게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크나큰 확신과 희망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국무위원장을께 남녘대륙의 한결같은 경도의 마음을 담아 뜨거운 감사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께서 꽃피는 봄계절인 지난 4월과 5월의 판문점상봉에 이어 9월의 황금계절을 더욱 풍요롭게 장식하시며 평양정상회담의 대성공을 안아오신것은 우리 민족끼리 비정신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진정기를 열어나가는데서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펼친 역사적업적입니다.

특히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께서 뜨거운 동포애와 넓은 도량으로 대변한 조치들을 연속 취해주시어 판문점선언리행의 총심한 수확을 안아오신게 이어 《9월평양공동선언》을 채택 발표하신것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의 미래를 열고 자주통일을 이루려는 우리 겨레의 발걸음을 더욱 빨라지게 한 힘 있는 추동력을 마련하신 특기할 공적으로 봅니다.

판문점에서 시작한 역사적인 첫 출발이 오랜 기간의 불신과 대결의 늪에서 파라질 뒀으나 실질적인 화해와 평화변역에 접어들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은 국무위원장의 깊은 지고과 불같은 열정, 불변불후의 로고와 헌신에 발돋워 평양정상회담의 대성공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탄생이라는 민족사적대기거 이룩될수 있었읍니다.

역사와 민족을 위한 막중한 사명감과 민족화해,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더욱 꽃피우기위한 확고한 자신감과 열정을 지니신 경애하는 국무위원장의 정력적인 명도에 의하여 우리 겨레는 판문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떠난 새로운 역사의 기관차를 평화와 번영의 궤도를 따라 멈춤도 탐험도 없이 더욱 기운차게 자주통일의 풍적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국무위원장은께서는 평양을 찾은 남녘사람들에게 줄같은 환대와 격식을 띤 친정민전 배움을 해주시고 15만 평양시민들에게 내세워주시어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굳은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고루해주시는것을 비롯하여 정상회담의 나날에 직접있는 일할수 있는 평양민들을 연속 편지시어 경황각지를 뜨겁게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국무위원장은께서 특히 민족의 넓과 기성이 어떤 조종의 산 태두산 세월봉에 뽀스 오로시어 용진양중만 명봉들과 거울처럼 맑고 푸른 천지모양의 전경앞에서 문재인대통령의 손을 맞잡아 높이 들어올리신것은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토록 전백제 민족사상 최고의 평양시를 통일으로 삼길래 온다라는 것을 당당히 소리쳐 일제강점기를 선언하였읍니다.

지금 이 땅과 온 평양은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남남으로 수심년세월 체결하고 비극적인 대결속에 지속되어온 불탄의 긴긴 겨울을 가셔버리고 민족의 화합한 봄을 안아오시었으며 9월의 뜻깊은 평양상봉으로 삼천리강토에 대동하는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기운을 더욱 뜨겁게 고조시키시며 평화와 번영, 통일의 풍요한 가을을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에 대한 경과와 찬사로 불없이 파도쳐설배이었고읍니다.

남녘의 각계층은 경애하는 국무위원장을께서는 뽀오면 뽀을수족 《너무너무 멋지고 정말 훌륭하신분》, 《너무도 친절하시고 겸손하시고 메가 밝으신분》, 《평창의 진취적이고 시대적사고를 하시는분》, 《감격, 행복, 영광을 자아내시는분》이라고 격찬하면서 《위대한 김정은위원장님 만세!》의 환오성을 지치고 있으며 민족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국무위원장을께서 지시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강성민정을 펼치고 세계가 우러러보는 최고의 상상봉에 오를 날이 멀지 않았다고 감격해하지 않고있읍니다.

이 땅은 물론 미국과 일본,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언론들도 경애하는 국무위원장의 탁월한 정치지도력과 견단에 의해 이번 평양상봉과 회담이 알차고도 광복함한 결실을 거둔 대성공적, 역사에 길이 남을 평양하고 국적인 상봉으로 되었다고 대서특필하고있는 이 경이로운 현실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집결한 결사위원을 모시었는가를 만천하에 용명으로 실증해주고있읍니다.

왕으로 민족앞에 하신 언약을 드림없는 실천으로 이어가시며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려정에서 또 하나의 빛나는 장으로 기록될 위대한 결심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은께서 우리 겨레와 온 인류가 칭송하며 따르는 천하제세의 애국자이시고 위대한 대성인이십니다.

이번 평양정상회담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발표를 통해 우리 민족은 역사적인 6.15시대를 펼쳐주시어 온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신심과 확신을 안겨주시어 위대한 김정일국무위원장님 그대로 우리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한몸에 지니시고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국무위원장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더욱 깊이 새겨안았읍니다.

위대한 주시념과 위대한 장관님의 유훈을 받들어 겨레에게 이어이 하나된 조국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국무위원장의 숭고한 뜻과 애국헌신의 결성세인 이번 평양정상회담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민족의 발걸음을 더욱 때밀어주고 이 땅에 꽃피는 화해와 단합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키는 무한대한 활력으로 되고있읍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눈부는 민족의 승경이 있고 강렬한 통일 의지로 불라는 겨레의 넓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민족모두의 꿈이 담겨져있는 새로운 비정표를 받아안은 각기 애국민들은 김정은국무위원장을님 일구힐심 따를 때 화해도 오고 평화도 깃들며 통일도 있다는 신심과 희망에 넘쳐있읍니다.

온 겨레가 평양상봉의 대서번에 접하여 격정과 환희에 넘쳐있는 지금 우리 반제민전의 투사들과 남녘의 각계민들은 결성위원의 향도마라 자주통일의 소중한 자산인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정열한 전군에 총력전한 격발번의 의지와 무지를 새롭게 가다듬고있읍니다.

우리는 민족의 위대한 명수이시며 통일의 태양으로 빛나는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을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의 화상한 봄도 평화번영의 풍요한 가을도 있는 별미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반제민전을 오직 국무위원장을에 대한 총성의 일견 단숨을 간지른 애국의 충신도요, 태양의 빛바람과 일로배전하는 불세의 진취대로 굳건히 다져나갔읍니다.

우리는 비범무쌍한 정치지도력과 열화와 같은 동포애, 하늘같은 덕망과 친화력으로 만인의 다름없는 칭송과 흠모를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국무위원장의 확고한 통일결론과 숭고한 애국애국의 세계가 경황각지에 전연한 해상처럼 비쳐지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나갔읍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국무위원장의 주체적인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절대불변의 전제로 삼고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 재현될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하루빨리 이행하여 통일을 일일선추로 갈망하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이 현실로 꽃피어나도록 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다하겠읍니다.

향도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국무위원장을님을 받들어 온 겨레가 서로 손을 맞잡고 뜻과 힘을 합쳐 과고우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우리 스스로 주입되는 새로운 시대는 흔들림 모르고 더 힘있게 전진하게 될것이며 세계는 머지않아 우리 민족이 어떤 자기 힘으로 통일의 일바람을 당겨오는가를 특특히 보게 될것입니다.

태양을 따르는 해마라기들의 대오가 날로 무성해지고 자주선군으로 봉척된 민족의 힘이 더욱더 커가고있기에 정의와 진리의 기치하에 나아가는 우리의 걸출대상에 그 어떤 난관과 역풍들이 막아선다해도 맥을 추지 못할것이며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활화산처럼 솟아나는 강항의 진취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뜨거운 흠모와 다함없는 총성의 마음을 담아 우리 민족끼리 전진하는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위하여, 삼천리강토에 통일강국이 우뚝 솟아 빛을 뿌릴 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민족의 태양이시며 최대의 현출위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국무위원장을께서 부디 안영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제107(2018)년 9월 20일
서 울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활적의 통일지와 애국의 대우안으로 두차례에 걸친 북남수뇌상봉에 이어 이번 평양에서 남조선 문재인대통령행을 따르며 맞이하시고 펼쳐주시신 헌신이 숭고한 애국의 내화독들을 커다란 환희와 감격속에 접한 전제 총련인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슴가슴은 만고절세의 애국자를 높이 모신 끝없는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으로 새차게 끓어넘치고있읍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10만여명 평양시민들의 열렬적인 환영을 받으며 태화평원관으로 가시는 태양처럼 환한신 모습과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시고 발표하시는 친화적일군의 열성, 대접단체와 예술공연의 화려한 무대로 북과 남이 손잡고 평화와 번영의 대풍로를 열어나갈 때 이 땅우에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울수 있다는 것을 감명있게 펼쳐주시고 민족의 신성, 조국의 산 태두산에서 우리 민족의 정기와 통일지를 전제하게 피시하시는 현출명장의 위인상을 우리모든서 전제 총련인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만세를 목청껏 부르고 또 불렀읍니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리정표를 새긴 역사적인 평양북남수뇌상봉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중대한 계기로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선현에 쌓아올리신 특기할 공적으로 세세년년 빛을 뿌릴것입니다.

전쟁 위대한 수명년들 그대로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숭고한 사명사로 새겨안고 그 실천을 위하여 불변불후의 로고한 비정표를 세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새로운 통일력사의 위대한 창조자이시며 삼천리강토를 환희 감하는 안전한 태양이십니다.

재일북조선인총련합회 중앙당위원회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화적일군과 확고한 통일성위의 대우안으로 5년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총성번영의 새 전기를 펼쳐시고 조국통일운동사적 특기할 평양수뇌상봉을 마련하시어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9월평양공동선언》을 선포해주시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전제 총련인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총성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최상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평양과 백두산에서 펼쳐진 특대사변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출위인상을 다시금 뼈부로 철각한 우리들은 주제조신을 위풍당당한 최상의 지위에 올려세우시고 국제정치흐름을 주도하시면서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여 통일위업선현의 진취적공약을 마련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도를 총성으로 받들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빛나게 완수하는데 힘입어 이바지할 불같은 결에 넘쳐있읍니다.

우리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대업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역칙의 신념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주시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시대와 함께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부흥과 후대들의 상강한 미래도 마련된다는 철리를 가슴에 새기고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실천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발없이 편치나섰읍니다.

우리는 총련의 각급 조직들을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 주체의 사상체계, 명도체계가 확고히 선 일심단결의 성세, 믿음직한 애국애국의 성들로 활동공간이 다지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기기 위한 애국애국의 진군을 더욱 가속화하겠읍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각계각층 동포들과의 민족단합사업을 총이 크게 벌려나가며 자주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조직전개하여 조국통일의 역사를 써나가는데서 중요한 입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수행하겠읍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의 활력을 있고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가까이 안아올리는 온 겨레의 성스러운 투쟁에 대한 일심단결과 세계인민들의 지지와 연대성을 끊임없이 고조시켜나가는 대외활동들을 더욱 능동적으로 벌려나갔읍니다.

우리는 어머니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견결히 옹호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특이하게 이바지함으로써 애국충정의 영예를 변함없이 빛내어나갔읍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간결한 념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며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영입니다.

총련중앙당위원회는 전제 총련인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총성과 흠모의 한마음을 담아 조국의 자주통일과 주제조신의 영원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적전진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주제조신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목재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제107(2018)년 9월 21일
일본 도쿄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공화국창건 70돐을 승려자의 대속진으로 성대히 경축한 환희와 기쁨을 안고 조국의 선관군인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병마부흥 향한 총진군에 앞차른 기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남조선 문재인대통령과 또다시 평양에서 상봉하시고 자주통일의 상강한 앞길을 밝힌 《9월평양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시었다는 친하를 진감하는 총련의 뜨거운 열기로 녹여주시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주시어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적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북과 남의 최고수뇌분들께서 격식과 틀이 없이 마음을 리놓고 중대한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견해를 청취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신 이번 평양에서의 상봉은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또 하나의 역사적인 계기로 되었고읍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제확인하고 북남관계 발전 민족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이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세안 문제들과 구체적인 실천대책들을 명명히 밝힌 공문선언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시신 《9월평양공동선언》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판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총실의 리행하여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치고 조선반도를 백두기도 때 위험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나갈 새로운 리정표입니다.

우리 겨레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겨주고 강렬한 통일 의지로 불라는 온 민족의 열기를 반영한 《9월평양공동선언》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4.27판문점선언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대장으로 청사에 이로세겨질것입니다.

왕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은 위대한 대헌수님들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시어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경풍으로 온 겨레를 자주통일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이십니다.

최세의 현출위원은 민족의 권두에 모셔어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내정정치를 능수능수 사변없이 펼쳐지고있는 현실들을 목격하면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제 재중조선인들은 끝없는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9월평양공동선언》을 고구려행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자세 벌려나갈 결에 총련되어있읍니다.

우리는 민족의 운명이시며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는 한 조국통일위업은 머지않아 반드시 실현된다는 확고한 신심을 새겨안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발없이 펼쳐나섰읍니다.

우리는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정당성과 민족사적의에 대하여 재중조선공민들은 물론 각계 동포들속에 널리 인식시키기 위한 선전활동을 과감히 벌려나가며 모두가 열과 정을 다하여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총련합회인군들과 전제 재중조선인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총성의 한마음을 담아 주제혁명위업의 완성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세계 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영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주제107(2018)년 9월 19일
중국 심양

군인들과 함께 맞으신 찬미

위대한 장관님의 선군경, 불미란 보아도 병사들을 찾아 우리 장관님께서 걸고계신 전 만리길에 새겨진 만년산악이 가슴을 울려온다. 찾으시는 초 소미다에서 친어머님의 다정한 사랑을 부여주시어 위대한 장관님의 유익의 정이 있어 우리 인민 군대는 부적결승의 혁명장군으로 위용떨치는것 아니겠습니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관님의 선군혁명령도자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애국헌신의 백사이며 인민 대적병들과 인민군에 대한 절 대적 믿음과 친어머이사람으로 수놓아진 숭고한 믿음과 사랑의 령도사입니다.》

어느때 4월 위대한 장관님께서 동해안의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어 군인들의 전투훈련을 보아 주시며 애를 입었다. 위대한 장관님께서는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관하부대별로 진행되는 각이한 훈련모습들을 보시면서 매우 만족하시였습니다. 물론에도 뒤고있던 위대한 장관님께 자기들의 훈련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군인들은 입담떨고 기가상과 흥행에 넘쳐 모든 훈련동작들을 훌륭히 수행해나갔다.

훈련이 한창 고조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하늘이 칠푼해지더니 후후후후 비방음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다행히도 위대한 장관님을 감시대에 모시였기에 일꾼들은 마음을 놓고 그저 군인들의 훈련이 성과적으로 잘되기를 바라고있었다. 그런데 문득 위대한 장관님께서는 비방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군인들이 훈련하

는것을 감시대에 나가서 보자고, 군인들이 밖에서 찬미를 맞으며 훈련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시대에서 훈련을 보겠는가 하고 하시며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훈련하는 군인들이 그것도 한참 젊은 나이에 비를 맞았는데 무슨 큰일이시고 전선시합의 뽀고 힘찬 결이서 세대의 눈비를 다 맞으시는 우리 장관님께서 일부의 함에 나가 군인들과 함께 비를 맞으신단 말인가.

일꾼들모두가 인라싸운 심정으로 그이를 만류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관님께서는 자신의 건강을 넘피하는 동무들의 마음을 알만 하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이 비를 맞으면서 훈련할 때에는 최고사령관도 훈련비를 맞아야 한다고 굳이 사양하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위대한 장관님께서는 감시대인을 나서시어 내피는 찬미를 고스란히 다 맞으시며 군인들의 훈련을 마지않까지 보아주시였습니다. 어떤분들이 비에 흠뻑 젖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 군인들의 훈련을 보아주시며 위대한 장관님께서는 군인들이 훈련을 잘한다고, 훈련을 민족하게 보았다고 거듭 치하해주시였습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군사정판들도 많지만 병사들과 이렇듯 한치의 간격도 두지 않으시는 우리 장관님과 같이신분이 어디에 있는는가. 걱정이 솟구쳐올라 일꾼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절세위원의 선군경에 데려난 이런 하찮은 사랑의 입화들은 오늘날도 우리 인민군장병들을 무한히 격동시켜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군마다에서 새로운 위훈과 기적창조로 피뎌어주고있다.

편사기자 채희성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에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추석을 맞이하여 화환 진정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에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추석을 맞이하여 24일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려사릉들과 려사묘의 화환진정대에 놓여있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인 박광호 동지, 태평수동지, 박대성동지, 최부일동지, 로부일동지, 최희봉동지, 정경택동지, 김승오동지와 유당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서원들,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꾼들, 시인의 기관, 기업소 일꾼들, 근로자들이 화환진정대에 참가하였다.

리명수동지, 김승일동지를 비롯한 무명기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에국렬사릉의 화환진정대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무한히 총지하였으며 조국의 해방과 부강명예, 주제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고귀한 생을 바친 려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참가자들은 려사릉들과 려사묘를 돌아보았다.

이날 각지에 있는 려사들의 동상과 려사릉, 인민군렬사묘도 참모들이 진정되었다.

【조선중앙통신】



